

2016 년 10 월 16 일 찾아오신 예수님(9) “살리시는 생명의 떡”(요 6:30-35; 53-59)

<도입>

영화/책 “나의 산티아고”: 주인공/저자 하페 케르켈링, 독일 최정상 엔터테이너.

하페는 어머니를 일찍 데려 가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질문(“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을 가지고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순례길을 나서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신이 누구인지 알아낸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질문은 우선 아주 겸손해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의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순례 여정을 마치면서, 그는 ‘산티아고의 길은 당신에게서 모든 힘을 가져가고 그 힘을 세 배로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세 배 더 큰 힘을 얻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할 선택의 길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배의 힘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바람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금 더”의 욕망은 결코 큰 힘을 얻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보다 차원이 다른 엄청난 큰 생명의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군중들은 배고픔의 상태를 면하면 족하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으면 족하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1] 6 장의 흐름.

5 병 2 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러진 군중들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14 절). 이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40 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층 동족들에게 착취를 당하던 이들은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불리 해주시니까, 바로 이분이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줄 진짜 왕 되실 분이라 믿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망하듯이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과 군중은 만나게 됩니다. 26 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보리 떡 몇 개가 육신의 배를 불리는 사건을 넘어서 본질적인 영적 배고픔(영적 갈망과 기대)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28 절)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29 절)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답답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보리 떡이 상징하는 표적의 진수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떡인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은 진정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9 절 → 51 절, 아래[2]의 해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니까(51 절), 매우 어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2]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

생명의 떡,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 (1) 예수님이 진리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심을 믿는 것과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실행이 따릅니다.
- (2) 예수님이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삶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3) 예수님과 하나됨은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낮아짐은 섬김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으로 섬기십니다(13 장). 이것이 영생을 부요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4) 결국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이 섬김을 넘어서서 죽음의 차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 십자가가 가르쳐 줍니다.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의 뜻은 결국 위와 같이 사는 것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에 최고의 삶이라고 확신 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에 머물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생명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의 구체적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일체감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기쁨이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당신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몇 배 더 높은(차원을 달리하는) 힘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영생(보다 부요한 삶)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3. 지난 주일 참여했던 성찬식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